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 탈레반에 납치됐다 풀려난 한국인 인질 19명이 지난 9월 2일 입국했다. 분당 샘물교회 신자를 비롯한 23명이 봉사활동을 명분으로 출발했다가 2명이 현지에서 살해되는 아픔도 겪었다.

지난여름 무더웠던 날씨만큼이나 우리국민을 짜증나게 만든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간단히 넘길 수 없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첫째, 기독교의 선교방식이 너무 공격적이다. 기독교 자체에서도 "물량적 교회 성장 정책은 해외선교에 경쟁을 촉진시키고 호기심과 탐험심이 강한 젊은 학도들을 자극시켜 봉사활동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 선교를 강행한다(김형태 원로 목사)"고 스스로 자책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의 참뜻을 나누고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섬기는 '미시오 델리(Missio Delii)' 보다는 예수의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는 '미시오 크리스티(Missio Christi)'에 치중되어 있다. 이 전도 방법은 '예수의 자상명령'에 따라 대상을 가리지 않는 공격적, 배타적 복음전파를 보인다. 남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선교활동은 '문화적 폭력'이다.

둘째는 국제적 감각이나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 기독교는 크게 루터파와 칼뱅파가 있는데 루터파는 가톨릭교회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한성대 교수

아프간 인질사태를 보는 국민의 눈

하고 이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국가지상주의를 토대로 공격적 방식으로 출발했고, 칼뱅파는 하나님 앞에 원죄 의식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 들어 온 기독교는 루터파이고, 국내에서 쓰는 공격적 방식으로 해외 선교를 하다 보니 타 국가 문화와의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이번 인질사태에 대한 몸값을 지불했는가의 문제다. 외신은 2000만 달러(약 187억원), 2000만 유로(약 257억원)를 지불했다고 보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장관은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

다. 만약 돈을 주었다면 그 돈은 정부의 돈이고,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이다. 국민의 돈을 제한국에 간 기독교 인질 구출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 돈은 당연히 샘물교회 또는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 말하자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04년 이라크에 납치되었다 풀려난 자국민 3명에게 항공료 2400만 원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넷째, 인질구출과정에서 국가정보원장의 적절치 못한 소행담을 들 수 있다. 국정원은 읍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공개적인 기자회견, 상식이하

의 발언으로 코미디 같은 행동을 보여 주었다.

다섯째, 한국외교정책의 틈새이다. 불법감금을 자행한 테러단체와는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협상원칙인데 우리 정부는 이를 어겼다. 우리나라는 어쩌면 정당한 외교능력이나 국가의 존엄성을 갖추지 못한 국가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불법감금 자국민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와 다른 차원의 모습이다.

여섯째, 탈레반에 의한 인질문제의 해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좌파세력, 시민단체들은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촛불시위를 시도했다. 이는 실제적인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미국에 가서 인질문제를 부탁하고 다녔다. 이러한 갈팡질팡 전략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해외 종교활동의 원칙을 수립하고 자국민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외교적 사나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와 국가, 종교와 종교 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위가 보장되는 토대에서 해외종교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고 본다.



조계종에 '특단의 조치'를 바란다

조계종이 최근의 난맥상을 딛고 한국불교 장자종단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다. 노천에서 비를 맞은 후에 우산을 준비하는 격이 되었지만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비를 맞은 뒤에 땅이 더 굳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다.

9월 4일 개원해 5일 폐회한 조계종 제174차 임시중앙총회에는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동국대 문제와 관음사·백담사 문제 등으로 종단의 균열상이 극심한 시점에 열린 총회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동국대를 둘러싼 이사회부 추천과 현재 이사직과 중앙총회의원직을 겸임하고 있는 스님들의 행보에 대한 종단 안부의 관심은 매우 컸다. 중앙총회에서 총회의원들이 격렬하게 되면 자칫 과거의 종단사태가 또다시 재연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중앙총회는 격렬하지 않았고 오히려 승가의 '무소유 정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또 작금의 종단 현안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대승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기구도 구성했다. 이번 제174차 임시중앙총회에서 의원스님들은 상정된 여러 안건들도 순리대로 토론하고 의결하는 등 화합정신이 살아 있는 모습도 보여 주었다.

물론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총무부장 현문 스님의 자성 어린 목소리도 교계에 희망의 메시지로 들렸다. 또 실천불교승가회와 참여불교제가연대 등의 자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들도 종단을 건강하게 이끌어 가려는 사부대중의 열의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었다.

중앙총회가 승려법을 개정해 종단 소속 스님들이 환속·제직·사랑할 경우 개인 명의의 재산을 종단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삼보정체의 유실을 막고 승가의 무소유 정신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있는 조치다. 그러나 이 법이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승가의 노후복지 정책이 반듯해야 한다.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소유 정신만 강조한다는 것은 관념을 낳는 원인이 된다.

조계종 뿐 아니라 모든 종단에 소속된 스님은 해당 종단이 노후와 사후를 어떻게 책임져 주어야 수행과 전법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복지와 인사의 공정성, 노후복지와 사후복지야말로 현대사회의 출세간에게 있어 기본권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조계종이 이번 임시중앙총회에서 종단 현안과 관련한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 역시 승가의 기본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일한다. 최근의 난맥상을 딛고 일어 서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이번 대책기구를 구성시켰다. 대책기구의 출범은 상징이 아니다. 어떤 일보다 급박하고 절실한 실천이 담보되어야 한다.

나라로 빠져드는 종단을 견제 올리는 일, 부종수교(扶宗衛敎)의 일념으로 종도와 국민들이 납득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반성과 재기의 틀짜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대책기구가 위기 모면용, 대외 홍보용으로 전락한다면 조계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중앙총회에서 대책기구를 결의하면 결의문은 "참회를 통한 자정의지를 현실에 옮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어느 정도의 선을 의미하는지 불자들이 지켜볼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28. 국가의 선교지원 안 돼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국가사업 지원 자격에 '종교제한' 없애야

수년 전 외교통상부의 산하기관인 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하는 해외봉사단 파견 지원 사업에서 특정종교 성향의 비정부기구(NGO)들이 봉사단원 선발에 종교제한을 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 사건으로, 부분 시정만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슈로 남아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NGO들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해원협)를 결성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한 봉사단원들에게 국내 사전훈련과 현지훈련을 실시하는데, 봉사단원 선발과정에서 '해원협' 홈페이지에 '비전 있는 기독교인, 심신이 건강한 개신교 청장년 남' 등으로 자격조건을 특정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공고를 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종교차별'이라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항의에 KOICA의 관계자는 "특정종교 신자가 아닌 일반인은 NGO를 통하여 않고 직접 KOICA 봉사단원 모집에 참가하면 된다"면서 사안의 본질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 선발과 파견 과정에서 종교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국가사업에 특정종교인에게 특별한 길을 열어줬다는 사실 자체가 위헌인지도 모

르는 공무원들의 무지가 놀랍기만 하다.

이를 계기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2006년 2월 7일 28개 중앙부처와 174개 산하 기관의 2005년도 인사지원서를 조사해 모두 16개 기관 응시원서에 종교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행정자치부에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촉구한 바 있는데, 26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시험시행기관별로 시행하는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국가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오랜 관행 중의 하나였던 종교차별 사안 한 가지를 확실하게 시정해 놓기도 했다.

그 후 다행히도 KOICA와 해원협 측은 잘못을 시인하고 특정종교 자격조건을 삭제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제구호단체들의 협의체인 해원협 홈페이지에서만 그런 자격조건이 삭제되었을 뿐, 실제 개별 단체들의 선발과정에서는 아직도 공공연하게 특정종교인들만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원협 소속 60여 개의 단체 중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국제기아대책기구, 한민족재단' 등 잘 알려진 단체들을 포함 90% 이상을 차지하는 개신교회 단체들이 대부분 자신



국제협력단의 방글라데시 의료 봉사 모습.

의 종교인들만 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한 해 수십 명이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각 봉사단원에게는 연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NGO 활동가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국가예산으로 특정종교인을 선발, 교육과 훈련을 거쳐 해외봉사의 경력을 쌓게 하는 특정종교 육성 편법이 정부의 묵인 아래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뽑힌 종교인들이 과연 봉사단 할까. 이번 아프간 단기선교 활동가처럼 봉사를 가정한 선교활동도 함께 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KOICA는 개별단체들의 선발과정까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선발과정까지 국가사업의 성격에 맞게 적합한 감독해야 할 책임이 예산배정을 하는 상위기관에 있음을 모른 척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밖에 할 수 없다. 교사 임금 전액을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채용에서 특정종교인에게만 자격을 주는 것도 명백한 종교차별이며 정교 분리 위배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해외봉사단 선발도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

학교나 해외봉사단단의 문제일까, 국가의 재정 지원 아래 종교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특정종교 일색의 직원 채용과 운용 방식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문제다. 여기에 불교계 시설도 예외가 아닐 듯하다. 도대체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이 왜 국가사업에서 소외되어야 하며, 국가 재원이 왜 선교사업에 간접 지원되어야 한단 말인가. 정부 가 시급히 답할 일이다.

결론 일반 국민에게 열려 있는 사회단체나 자선단체인 듯 보이지만 실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 지원 받아야 할 훈련된 기독교 인재들이 사회에 나가 세력을 형성하는 악순환 구조를 갖게 된 것 아니겠는가.

국가예산이란 불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그 세금으로 개신교 인재 키우고 선교하는 상황인데도, 불교계는 의식도 없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없다. 오히려 '그런 작은 일에 매달려 되겠는가, 시시비비를 떠나라'며 허풍머저 뿔기호한다. 사실 모든 사회문제와 원천에 어긋난 그런 사소한 일로부터 점점 커지는 줄도 모르고, 양자강가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 하는 것이 몇 달 후 뉴욕에 태풍을 몰고 온다는, 소위 '나비효과'라는 것이 가장 불교적이라는 사실을 불교인들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심포교 성공신화**

**릴레이 초청대법회**

**정우스님**  
통도사 주지  
9월 12일(수) 오후 7시  
나는 누구인가

**정여스님**  
여여선원 선원장  
10월 12일(금) 오후 7시  
참다운 행복이란

**지광스님**  
능인선원 선원장  
10월 18일(목) 오후 7시  
강남포교의 일면지 포교를 말한다

**법륜스님**  
정도회 지도법사  
11월 5일(월) 오후 7시  
정도행자의 발원과 실천

**수불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11월 22일(목) 오후 7시  
간화선 수행과 원력

**주최** |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법보신문  
**협찬** | BBS 부산불교방송, 국제신문, 불교TV

**주관** | 신도회관건립사추진위원회  
**문의** | (051)853-2021, 853-8539